

# “노사정 대타협” 경제살릴 새 길 열었다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의 대타협을 마침내 일궈냈다. 노동계·기업·정부 등 3대 경제주체의 대표가 지난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 제1차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데 이어 2월 6일 협의를 마무리짓고 제2차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협의과정에서 계속된 철야회의, 팽팽한 의견 대립, 일부 대표의 회의장 퇴장 등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나라 전체에 걸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의 단행없이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총체적 국가위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정한 고통분담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 해외자본 유치·경쟁력 발판 마련

이는 제 2차 노사정 공동선언문에서 밝혔듯이 '강제가 아닌 타협, 지배가 아닌 공존의 이념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역사 창조이며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발적인 국민 대통합선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로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제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아울러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통을 분담해가며 이겨 나가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게 됐다.

특히 노동계가 협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용조정 및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를 수용한 것은 '살신성인의 결단과 양보'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 고용조정 자제노력 필수

고용조정의 법제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인 해외자본 유치와 부실기업 정리 등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고용조정제도인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자제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기업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으로 방만한 경영과 불투명한 회계관리 등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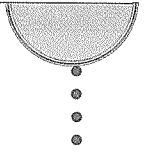
정부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구조조정을 통해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 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기구화한 것도 노사정의 지속적인 협조를 유지하기 위한 배려인 것이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해외채권단 그리고 외국기업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 공정한 고통분담 힘써야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대타협을 신속히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실행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할 고통은 엄청날 것이다. 우리는 이 고통을 공정하게 나누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우선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대량실업사태를 맞아 각종 실업 및 고용대책이 충분치 못하지만 정부는



고통을 공정하게 부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는 임금교섭구조 개선, 경영참가법, 종합적인 고용안정대책 등 2차 과제들에 대한 협의를 서두를 것이다.

이번 대타협결과 우리 사회는 기업경영·노사관계 등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전반

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는 거품과 거짓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시련을 극복하고 선진 대국의 대열에 진입해야 한다.  <국정신문>

## 제2차 노사정 공동선언문(전문)

우리는 지난해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에서 부도국가로 전락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민은 경제파탄으로 야기된 국난을 맞아 망연자실할 따름이었고 묵묵히 땀흘려 일해온 근로자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라가 벼랑끝에 서게 된 원인을 찾아내고 위기를 극복하여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토론과 고통분담의 결의를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각 경제주체가 공정한 고통분담을 통해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1차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현재의 위기가 결코 일시적인 외환위기가 아님에 공감하고 국가 전체에 걸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노사정 대표들은 현재의 국가적 경제위기가 초래된 것이 각 경제주체들이 맡은 바의 역할과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은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정간의 국민 협약을 이끌어 내어 각 경제주체들이 공정하면서도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노사정 대표들은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는 대량실업과 고물가·체불임금 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될 고용조정제도가 불려올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수립, 실천하고 무분별한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는데 향후 정책 역점을 두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오늘의 이 노사정 공동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강제가 아닌 타협, 지배가 아닌 공존의 이념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역사창조이며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발적인 국민대통합 선언입니다.

노사정 세 주체의 살을 깎는 살신성인의 결단과 양보 그리고 전례없는 성실한 논의를 통해서 국가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절박한 목표를 위해 고통분담을 통한 대타협에 도달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이 전국민이 일치단결해 국가 재도약에 동참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과 국민대통합의 정신에 따라 노사정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의·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998.2.6

노사정위원회 위원 일동